

Introduction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세상의 끝은 언제 올까요? 우리 세대에 올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올까요? 적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짐승의 형태를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성경 중에서 가장 궁금증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온갖 추측을 자아내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에, 교회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가지 모두 건강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 중 한 가지 반응은 요한 계시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조각그림을 맞추기만 한다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 날에 대하여 복잡한 도표와 연대표를 그리고서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 여러 잘못된 추측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제가 80년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은 1988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88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록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day)과 시간(hour)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해(year)와 달(month)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988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주장을 했던 찢은 책을 환불해주고, 교회에 사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1989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새로운 책을 출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생 중에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말세에 대지진과 화재들, 고통스런 빈곤과 정치의 타락, 개인 파산,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즉시 오실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 글은 William Miller에 의해서 1843년 쓰여진 글입니다. 그 때 수 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언덕에 앉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모두 끔찍한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번역자 주: William Miller: 18C 재림 운동 지도자)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곧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이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 재료들이 미국의 주요 백화점 지하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내게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던 G. K. Chesterton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요한이 그의 환상에서 이상한 괴물들을 보았을 때, 그 무엇도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의 난폭함에 비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시간이 지난 후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짓 말이 계속된 후,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누구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처럼 행동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것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다음 세대의 복음주의 신앙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언제 다시 오실 것일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행 1:7, 새 번역)" 예수님은 또한 그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 22:20, 새 번역)"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파고드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반응은, 요한계시록과 그 복잡 난해함에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책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책은 이상한 생명체, 짐승, 피, 유황의 잔,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 끝없는 구덩이와 용, 목사의 네 마리 말들, 전쟁, 유행병, 기근, 그리고 죽음 등 기묘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좋은 책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책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려고 하는 **삶의 강력한 가르침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추측들에 집착하거나, 그분께서 오실 날들을 예측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의 어떤 부분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에 복종하는 삶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를 쫓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주님이 오실까 그룹”**에 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불시에 다시 오심을 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요한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들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고 비 성경적인 잘못된 추측 대신, 성경적인 관점으로 겸손하게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아는 내용을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던, 몇 천년 후의 일이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에 요청하는 음성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8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녀는 늘 정해진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아이스크림은 한가지 종류뿐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달의 아이스크림이 무엇인지, 베스킨라벤스에서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꼭 영원토록 먹을 것입니다.

또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뭘 받고 싶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언제나 "면도용 로션, 양말, 넥타이, 슬리퍼"라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매년 한 짝의 슬리퍼를 다 써버리는지는 미스터리이긴 하지만, 그가 매년 새로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는 작년에도 제 작년도 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게 죄입니까? 물론 아니죠! 하지만 이런 삶에는 새로운 도전이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더블 퍼기 무스 리플 슈프림 아이스크림' 먹고 놀라워하거나,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에 "날 놀라게 해줄 선물!" 이라고 적을 수 있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이전에 성경에서 파보지 않았던 부분을 공부하십시오. 벼랑 끝에 서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이것을 좋아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Making the Connection

1.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또는 모험적인 무언가를 하려 노력했던 때가 있었다면 이를 나누어봅시다.

Knowing and Being Known

*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읽으세요.

2. "요한계시록(Revelation)"의 영어 뜻은 "감추어진 것을 공개하거나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3. 당신이 1세기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동안, 본문을 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구절들(특히 4-8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을까요?

4.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당시 핍박 받고 있던 교회에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나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The whole counsel of God: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든 부분의 가르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정 부분이나, 몇몇 좋아하는 부분만을 공부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만 읽거나, 시편, 잠언만을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만을 공부합니다. 바울이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고 한 것과 같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더 깊은 성장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디모데 후서 3:14-17절을 읽으세요.

5.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과 관련하여, 다음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번역자 주: 위 단어는 한글 성경(표준새번역)을 기준으로 나열됨)

- * 교훈(teaching)
- * 책망(rebuking)
- * 바르게 함(correcting)
- * 교육함(training)
- * 유능하게 함(equipping)

6.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 단어 중 한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감의 능력(God-breathed Power)'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함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일깨우시고, 삶 속에서 훈련시키셨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소 그룹 멤버들이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좇음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하도록 도전할 수 있을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나요? 그것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공부함에 따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한 가르침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단순히 나라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역과 우리 마음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둘째로,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은 강력하고, 성경의 다른 저자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이 무한하게 처할 상태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토록 머물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전에 없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복음주의)을 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곱 교회에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을 향한 요한의 글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 요한 계시록 22장 7절, 12-21절을 읽으세요.

7. 예수님의 말씀(22장 7절)과 요한의 말(22:18-19)했던 것의 견지에서, 당신은 이러한 말을 하는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는 이것을 읽으며 괴로워하거나,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요!"*

8.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누가 들어가 있고, 누가 바깥에 남아 있을지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12-15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바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 본문 12-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째서 그 시대에 핍박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을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나요? 그것이 축복의 약속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읽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한 신약의 유일한 책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7)

요한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따른다면 당신에게 복(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들을 때 재산을 얻거나, 일이 잘되거나, 건강이 좋아지는 것만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대상들은 그들이 축복받았거나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 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요한은 외딴 섬에서 유배 받고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일부 사람들은 거짓 교사에 걸려 넘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냉담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던져버리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이 책을 읽고 이 말씀들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입어 살아가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삶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경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11.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봅시다.

Celebrating and Being Celebrate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16)

- * 교훈(teaching)
- * 책망(rebuking)
- * 바르게 함(correcting)
- * 의로 교육함(training in righteousness)

소 그룹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교육하신 것과 말씀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Loving and Being Loved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 1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의 삯을 치르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에 따라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거나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지옥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향해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전달할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이 일을 섬김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Serving and Being Served

이번 과에서 (6번 문제) 성경을 공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셨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영역에서 그들의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룹으로 책임감 있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서로로서도 도움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두 명씩 짝을 지어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달 동안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움시다.

요한계시록 1:12-20절

제 친구는 세 살 된 딸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세 살 된 딸은 귀가 멍멍함하고 아파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씹는 것이, 귀의 기압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가족 여행 때, 그녀는 동물 크래커를 몇 개 가져와 딸에게 줘어 주며 비행기에서 귀가 멍멍하고 아플 때에, 이 크래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딸은 영문을 몰랐지만, 어머니의 지혜를 신뢰하며 두 개의 동물 크래커로 귀를 막았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성경 학자들은 "해석(hermeneutical)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석학의 목적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에 해석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늘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변덕스럽게 해석하거나, 누가 가르치는가의 권위에 의존하여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격적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반에 표현된 상징(symbolism)이나 은유(metaphor)를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그림에만 열중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풍부한 뜻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요 10:9)라고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의 문고리와 경첩이 있는 진짜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metaphor)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야, 그것들은 이치에 맞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해석 없이 단순히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한다면,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크래커로 귀를 막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Making the Connection

1. 화자가 말하는 단어들이, 청자가 이해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요한계시록 1장 12-20절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이해하기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들은 이해가 어렵지 않지만, 다른 몇몇 모습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날카로운 양날 칼이 입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올 칼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의 시대에 칼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칼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칼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책임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과 그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쏘다(shooting off your mouth)"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에 신중하지 않는다면, 말은 쏘아진 화살처럼 날아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번역자 주: 말을 쏘다→말이나 시선으로 상대방을 매섭게 공격하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다 (dodging verbal bullets)"나 "분노의 폭발(exploding in anger)"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칼의 모습은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나타낸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에게 "떠올라라"라고 말할 때, 태양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완전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2. 본문에서 당신에게 깊게 들어오는 이미지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7:9-10, 13, 1:5-6을 읽으세요. 다니엘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3.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권세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4.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기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을 이해하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상징은 숫자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몇몇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지를 받았던 일곱 교회는 요한의 시대의 실제 교회였으며, 우리는 그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몇몇 숫자들은 상징(symbolism)적인 의미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곱(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가 칠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저자들은 이를 완

전하고 완벽함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자주 언급되는 숫자들 하나는 **열둘(12)**입니다. 우리는 열두 지파, 열두 장로, 열두 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열둘의 의미는 구약과 이스라엘, 신약,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또 자주 언급되는 숫자들 중 하나는 **육백육십육(666)**입니다. 이는 짐승의 낙인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이 짐승의 낙인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이마와 손에 찍어집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3:9절에서 모세는 유월절을 지키는 규정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개역개정)”** 물론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이것들을 머리카락이나 손에 달고 다니지는 않았습다.** 요점은 유월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붙인 표는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의 표는 그들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이 큰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다”**고 말했을 때, 모세는 은유(metaphor)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말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손(문자 그대로의 손)을 썼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번역자 주) 실제 여러 버전의 성경들이 이와 유사하게 해석함: “이것을 너희 손에 새긴 표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기념물처럼 여겨** 야훼의 가르치심을 되뇌어라.” (공동번역)

*** 요한계시록 13장 11절 ~ 14장 1절을 읽으세요.**

5. 본문에서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과,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조되니까?

6. 본문에서 손과 행동에 예수님의 표를 받은 사람과,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조되니까?

*** 시편 46:1-3, 6 그리고 요한계시록 6:12~17을 읽으세요.**

7.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power)에 대해 배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우주적 사건들 이해하기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실제로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통치자(ruler)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지배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군대와 말, 무기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결정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는 진리는, 하나님의 그의 목적대로 행하시며, 사람은 그것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 잡은 사람이 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 개입하시면, 그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사람은 그 앞에서 권세를 잃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의 반석(rocks our world)”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반석(바위)이라는 뜻은 **그 기반을 나타냅니다.** (번역자 주: 계시록 6:16절의 바위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 중요한 한가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에 희망과 자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로마

시대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비록 지금은 세상이 로마 정부와 구대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이것들을 흔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 지진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고 생각해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체들을 이해하기

오늘날에도,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동물과 생명체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의 만평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만약 선거가 끝난 직후, 신문에서 코끼리가 울고 있고, 당나귀가 기쁨에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과 그 속의 동물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들과 그 생명체들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이야기는 앞뒤가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미국에 거주한지 얼마 안 되는 이민자라면, 당신은 이 그림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힘있게, 형상화되도록, 또 넘치는 하나님의 신뢰 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요한계시록 5장 4절 ~ 6절을 읽으세요.

9. 본문에 나타난 두 생명체 (주: 양과 사자)의 극적인 차이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데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10. 당신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승리하신 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삶 속에서 경험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으로 어떻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미지가, 당신이 예배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Celebrating and Being Celebrated

유다 지파의 승리하신 사자와, 하나님의 죽음 당하신 어린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미지가 당신의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도록 해보십시오.

Loving and Being Loved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하나뿐인 독자를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당신의 손으로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의 행동을 더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을 하나 멈춥시다.

Serving and Being Served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 칼과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과,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방법은 성경을 주고,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는 동안, 그가 당신에게 질문하도록 당신을 오픈 하고, 심지어 당신의 성경공부에 그를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소 그룹에서 성경을 단체로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소 그룹은 서점에 가서 몇 가지 버전의 성경 중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는 버전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The Journey: New International Version (Zondervan, 1999)를 추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사람들은 특별한 인물들의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어합니다. 몇 년 전 ‘부자들의 생활(Lifestyles of the Rich)’이라는 TV쇼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쇼는 고가의 경비 시스템과 여러 겹의 문을 지나서, 우리가 절대 초대 받거나 가보지 못할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쇼는 엄청 비싼 물건들과 명품들이 모인, 보통 사람들은 꿈에서나 불법한 집을 보여주는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부자들의 생활”의 어떤 집에도 비할 수 없는 궁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은 지었고, 1635년경에 이 궁전을 유지하기 위해 36,000명의 일꾼들이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36,000명이 바글바글 일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천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베르사유 궁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Making the Connection

1. 당신이 본 것 중에서 가장 놀라웠거나 멋있었던 집을 나누어봅시다. 그 장소에서 당신은 그 집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Knowing and Being Known

최후에 감추어진 것들에 대한 여행(The Ultimate Behind-the-Scenes Tour)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특이한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1, 새번역)” 요한은 “제가 이 여행에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의 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영원의 커튼 뒤에 감춰진 것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말이나 이미지, 표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본문의 이미지들의 뜻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요한의 목적은 우리에게 위엄 있고, 놀라우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상의 중심에는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있습니다. 이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아름다움, 선하심과 영광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끊임 없는 응답의 예배입니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을 읽으세요.

(한 사람이 이 구절을 읽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눈을 감고, 요한이 보았던 모습들을 떠올려 봅시다)

2. 이 장면은 우리의 오감을 깨우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을 나누어봅시다.

* 이 장면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see)?

* 이 장면에서 당신은 무엇을 들었습니까(hear)?

* 이 장면에서 보이는 것들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feel)?

3. 요한의 환상의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좌에 앉은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마음에 주님의 보좌를 놓기(Making your heart a throne room)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Good Morning, Lord)" 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맏소사..... 아침입니다(Good Lord, Morning)!" 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처음 일어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설레임입니까? 아니면, 걱정, 슬픔, 조급함입니까? 또는, 당신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은, 근처 커피 집에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처음 생각이 "하나님, 나의 삶을 당신의 뜻 안에서 인도하십시오!"이고, 두 번째 생각이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집중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봅시다.

4.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의 모습들과 비교해봅시다. (하나님, 친구, 용서자, 구원자.. 등)

5. 아침에 일어나 먼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요한계시록 4장 1-3절을 읽으세요.

6. 당신이 유치원에서 본문의 구절을 읽어주며 각 이미지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한 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실과 위엄의 하나님(A Majestic and Faithful God)

요한은 그가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의 보좌의 방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다고 말합니다. 1), 그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기록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그림입니다. 그나마, 요한이 본 것 중에서 그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벽옥이나 홍옥, 비취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것들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모든 장면에 임재 함을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둘레에 비취옥(emerald)와 같아 보이는 무지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무지개를 듣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약속(promise)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지만, 대홍수 이후 만약 하늘에 먹구름이 생겼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에게 심판이 임할까?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에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임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날 이후로, 하나님은 무지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배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 1) 번역자주, 디모데 전서 6:16 참조

7. 보좌의 방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실과 위엄의 하나님의 모습을 구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The Power of God)

요한은 종종 일곱이라는 숫자를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적었을 때, 이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과 족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했다고 말한 장면에서 (계 4:6), **바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장면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고,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

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 요한계시록 4장 4-6절을 읽으세요.

8. 본문의 한 장면을 통해, 이 단어와 장면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감을 주는지 나누어봅시다.

9. 본문은 또한 성령(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당신은 왜 성령이 언급되었다고 생각하나요?

10. 다음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집(Your home)

* 당신의 교회(Your church)

* 세상(Our World)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이 예배자로서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가도록 어떻게 인도합니까?

서두름 없는 예배(Unhurried Worship)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기회들을 생각하며, “나는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결코 이루지 못할 꺼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결혼 또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시간이 우리편이 아닌 이상, 주님의 보좌 안에서 모든 일은 서두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But while time is our enemy in this world, things are never in a hurry in the throne room).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서두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양손에 영원을 붙잡고 계신 분이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좌의 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두름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물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기 전에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록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유지할 때, 우리는 마음에 보좌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이것들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요한계시록 4장 6-11절을 읽으세요.

11. 본문의 예배자들의 말과 행동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2. 대부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을 이끄는 당신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속도는 어떠합니까?

(Describe your own pace and condition of your heart leading up to most worship services that you attend)

다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Celebrating and Being Celebrated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신실하게 당신의 삶에 개입하신 일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당신의 공동체 멤버의 삶 가운데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지개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Loving and Being Loved

사랑의 가장 커다란 실천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일 한번 뿐 아니라, 매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계명 중에 우선하는 것으로 다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22:37)

내일 아침, 직장에서 열람실에서, 가정에서 당신의 집이 작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일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순간순간 멈추어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신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차에 탈 때, 이 공간을 성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일은 당신이 음식을 먹는 식탁을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밤에 침대에 머리를 누울 때, 시간을 들여 몇 분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당신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당신의 살피심과 보살피심 가운데 이제 잠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당신을 내 삶에 모시고 살겠습니다.”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안에 모실 때, 당신이 가는 모든 공간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Serving and Being Served

우리는 뜨겁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속도를 늦추는 것**”의 가치와, “**서두름 없는 예배(unhurried worship)**”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해봅시다. 특히 그 사람의 주일 스케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만약 룸메이트라면, 일요일 전에 미리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이 조금 서두름을 늦추고 주일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합시다. 당신이 결혼했다면, 예배 전에 당신의 배우자의 짐을 조금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배우자와 함께 예배전의 분주함을 늦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봅시다.

Session Four

당신의 삶의 가장 흥분되는 5분(the most exciting five minutes of your life)

요한계시록 14

당신의 삶에서 가장 흥분되었던 5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난 삶들을 할 수 있는 한 멀리 돌아보았을 때 가장 가장 흥분되었던 5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흥분되게 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이 만들었나요?

출생의 순간은, 가장 흥분되는 5분의 좋은 예입니다. 9달의 어둠과 고립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세상 밖이 색깔, 맛, 소리, 감각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난 처음 5분의 생생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조금 걱정되었지만, 지금 이순간이 훨씬 멋진걸요! 난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물론 태어난 직후 5분의 경험은 급진적이고 눈을 뜨이게 하는 경험이지만 우리가 죽은 후 5분에 경험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중 진실로 가장 흥미로운 5분이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지식인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쳐서 죽음의 비밀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누구도 그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의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뒤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성경공부를 하며 5분간 앉아있게 될 것처럼, 이 세상 후의 5분은 우리 각자에게 꼭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될 소리, 우리가 갖게 될 영원의 처음 5분의 경험을 완전하게 상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Making the connection

1.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난 후 처음 5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5분을 단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기억하는 큰 기쁨과 신났던 때를 이야기해봅시다.

Knowing and Being Known

영원한 축복의 상태(The state of Eternal Blessedness)

영원의 처음 5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에서 하나님의 어린양과 144,000명의 사람들을 본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나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과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종종 상징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12는 인류에 대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개의 족속과 12사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12의 곱의 의미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144,000**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음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 죽음의 의미를 거꾸로 전환시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 "축복"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사실은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처음 다섯 구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2. 당신이 어린양과 함께 있는 144,000명 중의 한 명이라고 상상했을 때, 당신은 주변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까요?

3. 소모임에서 당신이 배운 성경적 해석으로 아래의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모습

*물이 몰아치고, 천둥,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모습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모습

4. 우리는 하나님을 앞으로 비롯되는 축복됨을 천국에서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징벌의 상태((The state of Eternal Condemnation))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영원한 축복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환상은 또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몇 사람의 영원 가운데의 첫 5분은 그들은 다른 현실로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의 다음 장소는 영원한 형벌을 보여줍니다. 이 형벌은 단순하게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요한은 누구도 경험하길 원치 않는 고독과 고통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있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는 함께일 테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지옥을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맥주파티(밀러타임)를 즐길 수 있는 큰 볼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이 말하는 지옥의

모습이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만드는 겸손, 섬김, 친절, 사랑, 정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천국의 비전에서, 금과 진주 길은 완전하고 영원한 커뮤니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핵폭탄이 떨어진 후의 황폐한 도시의 모습, 모든 커뮤니티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6-12

5.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영원한 상태에 관해 말하는 심판의 다양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6. 당신이 죽은 후 영원의 상태에 있는 사람과 일분 동안 같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 사건이 다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

*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을 전하는 방법

*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

7. 어떤 사람이 그들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행동으로 이끄는 진실(The Truth Leads to Action)

요한계시록 14:6절에서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말해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3:9)”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졌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통로를 만드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전하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Eternity hangs in the balance! (주:Truth와 Action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함)

요한계시록 14:14-20, 마태복음 9:35-38

8. 하나님이 마태복음 9:35-38에서 말씀하신 추수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과 무엇이 대조됩니까?

9. 소 그룹 사람들과 당신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나누어봅시다

당신의 소 그룹 멤버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관계를 쌓도록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10 당신이 속한 교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하도록 돕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교회에서 효과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난 8개월동안 한번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 멤버를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의 교회에 복음전도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당신의 소 그룹 중 한 두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 이 코스가 개인적인 복음전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Celebrating and Being Celebrated

소 그룹으로 다음 각각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 *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 * 당신의 모임에 열매 맺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당신의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사역을 장소를 말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하는 증인으로 강력하게 서도록 중보합니다.

Loving and Being Loved

다른 사랑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행위 중 한가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전 3:15)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복음주의 훈련 코스에 자신을 참여합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시작을 도웁시다. 만약 당신의 교회 사람들이 이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지역교회를 찾아 이러한 훈련에 참여합니다.

Serving and Being Served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7-38)

당신의 지역 교회와 세상의 교회들, 그리고 본문에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들판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위해 하나님에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매 기도의 순간 하나님께 당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최근 몇 년간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보통 스포츠를 따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펼치는 스카이 다이빙이나 비행기에서 스노보드를 달고 뛰어내리는 것 같은 스포츠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동안, 그들은 공중에서 낙하산을 펴기 전까지 고 난이도의 묘기를 선보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따분한 운동선수들은 매 순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빙하를 타거나, 얼음 폭포를 최소한의 장비로 등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살아있음을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나 삶이 따분하고 틀에 박힌 일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온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깁니다.

물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와 인연이 없지만, 우리는 익스트림 영성의 영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익스트림 하도록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적으로 익스트림한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선과 악,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우리는 이를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각 이미지는 서로 상반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인 믿음 안에서 베풀 끝에 섬을 아는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Making the Connection

1.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끄럽게 되거나 다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당신에게 왜 이것이 재미있나요?

Knowing and Being Known

극도의 친밀감(Extreme Intimacy)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명성, 알려지는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린 시절 시작되었고, 절대 뿌리뽑지 못할 만큼 깊은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거절 받거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때,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감정과 본심을 털어놓을 때, 그는 다음 네 단어를 듣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우리는 친밀감을 갈구하기 때문에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얼마나 친밀하던 간에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갈급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의 외로움과 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성경 속 구절 중 하나는 이러합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볼릴 것이다.” (이사야 54:5)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이러한 익스트림한 친밀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사용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신부가 결혼식에서 느끼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 받는 듯한 기쁨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강력한 비전은 신부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는 것과 그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밖에 없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1-10절을 읽으세요.

2.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서 드러내며 행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천국은 구름 위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는 곳이고, 심심할 때 하프를 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 해봅시다. 본문에서 나타난 요한이 본 천국의 비전이 그 사람의 하나님과 보내는 영원이 이러한 것이라는 고정관 념을 어떻게 깨뜨리고 있습니까?

4. 당신의 가장 익스트림한 영적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이러한 체험이 어떻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요청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까?

극도의 권위(Extreme Authority)

오늘날 우리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 때로 이것은 군복에 있는 막대기의 개수일 때도 있고, 다른 때는 그 사람의 사무실의 크기 이거나 전망이 가장 좋은 책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최종적인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범용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누가 리모콘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이 TV를 보러 거실에 나왔을 때, 당신은 먼저 누가 리모콘을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가 지금 집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발견합니다.

우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리모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회사, 가정, 학교, 이웃과 삶에 대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깨어짐, 외로움, 가난, 원죄, 병, 나쁜 행실,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파위는 그의 권한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당신이 이를 거절하려 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리모콘을 움켜쥐고 있었습니까? 빨리 해방되고 싶은 씩씩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 기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을 망설였습니까? 당신이 그러했다면, 당신의 두려움을 내려놓 으십시오.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분께 기쁨으로 당신의 리모콘을 넘겨드리십시오.

* 요한계시록 19장 11-16절을 읽으세요.

5. 본문에서 나타난 상징(symbol)과 이미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익스트림한 권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6.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본문의 하나의 이미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이미지를 붙들 수 있을까요?

7. 당신의 삶에서 이 영역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드렸을 때, 돌아오는 주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 당신의 전문적인 삶

* 가정

* 자유시간

* 개인 재정의 사용

* 친구 관계

극도의 승리와 심판(Extreme Triumph and Judgment)

우리는 하나님과의 익스트림한 친밀함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우리는 온 세상이 그의 익스트림한 권세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거절한다면, 그 결과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초반부에서 우리는 큰 기쁨의 축제의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조금 다른 종류의 축제입니다. 천사가 새들을 불러 왕이나 장군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살을 먹어 고통을 주도록 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소름이 끼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담긴 장면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해 친밀함을 갈망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께서 그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17-21절을 읽으세요.

8. 요한이 그리고 있는 심판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심판이 현실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한가요?

9.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소그룹이 더 명확하고 익스트림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0. 당신의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온 사역 중에서, 문화 사역이나 영적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초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민감해지고, 그들이 당신의 교회에서 환영 받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다음 스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Celebrating and Being Celebrated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그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의 열망은 그가 자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사로 드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소 그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밀함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Loving and Being Loved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익스트림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의 권세에 순종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당신의 삶의 한 영역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Serving and Being Served

교회에 초대된 영적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의 교회가 더 따뜻하고 환영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돌아오는 주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랑과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행동해보십시오. 당신이 이 일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을 발견한다면, 교회의 다른 소 그룹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손을 뻗어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22-27절; 22장 5절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루해 보이는 천국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은퇴 후 머무르는 영원한 전원주택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를 천국에서도 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도 야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던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국에 야구가 없다면, 그곳은 그들이 꿈꿔왔던 그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친구가 반드시 다른 친구에게 돌아와서 천국에 야구가 있는지를 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친구여,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네. 좋은 소식은 천국에 야구가 있다는 것이라네." 친구는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 때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금요일 게임의 투수 명단에 자네 이름이 있다네!"

Making the Connection

1. 당신의 어린 시절에, 상상했던 천국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살아오는 동안, 상상했던 천국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Knowing and Being Known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In Heaven We will Be thoroughly Joyful)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 중 하나는 위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게 태어난 첫날부터 아기에게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아기가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젖거나, 목마르거나, 무서워하거나, 고통에 있을 때,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피고, 아기에게 평온함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자아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위안(self-comfort)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인 로라가 태어나고, 내 아내 낸시는 아이가 슬프거나 상처 입었을 때 언제나 한 두 종류의 말을 합니다. 그녀는 "아가, 아가, 아가(Honey, Honey, Honey)" 나 "그래 알았어, 알았어(I know, I know)"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문장은 로라의 조그마한 마음에 심기어졌습니다. 그녀가 말을 거의 못할 때에도 그녀는 "아가 아가 아가,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때때로 아이는 밤에 깨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가지 못할 때, 아이는 조그마한 침대에 누워서 말합니다. "아가 아가 아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때때로 낸시와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읽으세요.**

2. 이 구절은 매우 바쁘고 활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 영역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웁니까?

* 천국의 비전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그의 자녀들에게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에 의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보아, 당신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3. 이 구절의 어떤 이미지와 장면들이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경험할 기쁨을 보여주고 있나요?

4.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경험할 때까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이를 나누어봅시다.

천국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생산적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당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음을 알 것입니다. **낙원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본성은 생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열매를 맺고, 그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일이 괴로움이 된 후에도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이 생산적인 의미 있는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꾸시던 일종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천국의 낙원에서조차,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은 최대한 발휘될 것이고, 우리의 참여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마태복음 25:14-30)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작은 일들에 충성한 종에게 천국에서의 많은 일

을 맡기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천국에서 위대한 영혼을 필요로 하는 지적인 도전과 모험들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과 의지, 성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창조적이며 강력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물론입니다. 이곳은 달라스 윌라드가 표현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끝임 없는 좋으심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그러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분이 명령하신 **전 우주단위의 협력작업에 당신의 모든 능력을 끝임 없이 창조적으로, 완전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절대 지루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생산적일 것입니다.

* 마태복음 25장 14-30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읽으세요.

5.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현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산성을 앞으로 올 삶의 생산성과 어떻게 연결하고 계십니까?

6.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영원한 은퇴로 바라봅니다. 천국이 열매가 있고, 의미 있는, 생산성(fruitful, meaningful, productive *labor*) 있는 일을 포함하는 장소로 생각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합니까?

7. 당신이 가진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나누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이 은사나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는 해에, 주님을 위해 이 능력을 갈고 닦고,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적어도 한 가지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9-20절).

사람은 천성적으로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sin)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숨고자 하는 욕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서, 모든 일이 천천히 일어난다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 우리의 도덕적인 불완전함은 씻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1장 22-27절을 읽으세요.

8. 요한복음 3장 19-20절의 어둠과 요한계시록 21장 22-27절의 영원한 빛에서 당신은 어떤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9.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에 그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이 일이 우리가 죽은 후가 아니라, 삶 중에 즉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당신의 삶의 어두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소 그룹 멤버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Celebrating and Being Celebrated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한, 이러한 기쁨을 소 그룹 멤버들이 바로 오늘 경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Loving and Being Loved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는 날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본성과 불완전함의 싸움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간을 들여서, 당신의 사랑을 구하는 주변의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사랑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Serving and Being Served

하나님께서서는 일은 우리 삶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날들에 일을 향한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일은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일에 대한 새로운 기쁨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일의 장소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